

일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일본 소재 충남문화유산 현황 조사를 통해 활용 및 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유물 구입을 위한 유통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 기관과의 사전 교류 및 업무 협의
 - 작년도 초상화 실건 및 복제에 협력한 덴리도서관 방문
 - 미정리 한국본 현지 조사 협조 가능 문의
- 간사이 지역 고미술품 및 고서점 직접 방문을 통한 유통 조사
 -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진열품과 점주들과의 면담을 통한 유통의 실제 파악
→ 매입을 통한 환수 경로 확장 및 노하우 축적
 - 향후 충남 관련 유물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협조 요청
- 사적지 및 전시를 통한 국외 소재 한국 관련 문화유산 사례 조사
 - 초조대장경 소장 난젠지 및 조선통신사 숙소 겐닌지 현장 조사
 - 교토국립박물관 전시품을 통한 국외 소재 한국문화유산 현황 및 사례 조사

2 추진 방향

- 덴리도서관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
- <몽유도원도> 복제 및 미조사 한국본 현지조사 협조 요청
- 고미술품점 직접 방문하여 최근 유통 경향 파악 및 향후 정보 제공 요청
- 한국 관련 사적지 현황 및 활용 조사를 통한 향후 사업 구상 참고
- 전시품을 통한 일본 국립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유산 사례 조사

3 방문 개요

- 출장기간 : 2024. 8. 26.(월) ~ 8. 29일(목) / 3박 4일
- 방문지역 : 일본 간사이 지역(교토 · 덴리 · 오사카)

구분	인구	면적	방문도시 주요 특징
교토	252만여명 (‘24년)	4,612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간키 지방에 있는 행정 구역으로, 오사카부와 함께 2부 중 한 곳이다. 현청소재지는 교토시임▶ 794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의 수도였음▶ 혼슈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일본 전체 면적의 1.2% 차지▶ 2차대전 당시 교토만 피해를 면하면서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음
덴리	6만5천명 (‘19년)	86.42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간키 지방 중 나라현 북부에 위치한 도시임▶ 1954년 나라현에서 네 번째로 시로 승격됨▶ 덴리교 본부가 있으며, 도시 인구 절반 이상이 덴리교 신자임▶ 이에 따라 도시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됨▶ 충남 서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오사카	877만여명 (‘23년)	1,901k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간키 지방에 있는 행정 구역으로, 혼슈 중앙에 위치하며 교토부와 함께 2부 중 한 곳임▶ 도쿄 및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광역경제권이며, 인구도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에도막부 이전 중세까지 일본 역사의 중심지였으며, 2차대전 이후 일본 대표 상업 및 공업도시로 자리잡음

- 출 장 자 : 총 4명(박물관장, 교류협력부장, 선임연구원 2명)

이름	직위	담당 업무
민정희	박물관장	업무 총괄
이현상	교류협력부장	기관 방문 및 업무 협의, 유통 조사
박진호	선임연구원	출장 진행 보조, 현황 및 유통 조사
이유리	선임연구원	출장 진행, 통역, 현황 및 유통 조사

4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일 정	비고
8.26. (월)	인천	06:00 07:55	· 인천공항(T1) 집결 · 인천공항 출발	아시아나항공 (OZ0112)
	교토	12:00 13:30 15:00 17:00	· 교토 도착 · [사례조사] 산주산겐도 · [사례조사] 난젠지 · [사례조사] 도시사대학 윤동주·정지용 기념비	대중교통
8.27. (화)	교토	08:00	· 숙소 출발	대중교통
	덴리	10:00	· [공식방문] 덴리도서관	
	교토	19:00	· 교토 도착	
8.28. (수)	교토	10:00 14:00 16:00	· [유통조사] 시내 고미술품점 · [사례조사] 겐넨지 · [사례조사] 교토국립박물관	대중교통
	오사카	19:00	· 오사카 도착	
8.29. (목)	오사카	10:00 14:30 17:30	· [유통조사] 시내 고미술품점 · 숙소 출발 · 간사이공항 출발 ※항공사 사정으로 출발 예정 시간 30분 지연됨	아시아나항공 (OZ0113)
	인천	20:00	· 인천공항 도착, 해산	

Ⅱ 출장 내용

① 1일 차

□ 방문지

- ① 산주산겐도
- ② 난젠지
- ③ 도시샤대학 윤동주 · 정지용 기념비

① 산주산겐도(三十三間堂)

○ 방문 개요

- 일시 : 2024. 8. 26.(월) 13:30~14:30
- 위치 : 京都府京都市東山区三十三間堂廻町657
- 목적 : 일본 국보 문화유산의 현황 및 활용 사례 수집

○ 일반 사항

- 1165년 완성된 천태종 사찰로, 정식 명칭은 렌게오인혼도이나, 본당이 33칸으로 되어 있어 일명 산주산겐도로 불림
- 처음 전형적인 가람 형식으로 창건되었으나, 1249년 대화재로 소실된 후 1266년 본당만 재건됨. 본당의 길이는 118.2m임.
- 본당 내부에는 천수관음상 1,001점이 나열되어 있으며, 본당과 천수관음상 모두 국보로 지정됨



산주산겐도 본당 측면 ※ 내부 촬영 금지

○ 시사점

● 문화유산적 측면

- 본당은 그동안의 화재로 인해 현전 교토 소재 목조 건물 중 다이호온지(大報恩寺)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임
- 또한, 중세 선종의 유행으로 임제종 사찰이 많은 가운데 천황과 직접 관련된 천태종 사원은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지님
- 고려시대 천태종 사원 건물이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대형 건물인 본당의 목조 기술과 건축 양식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됨
- 1,001점의 천수보살은 목재에 도금하여, 불상마다 표정과 형태에 차이를 보여 중세 일본의 공예 수준을 엿볼 수 있었음. 본당 전체에 진열되어 있어 큰 효과 없이도 사원의 장엄한 분위기가 연출됨.



본당 내 천수관음보살(출처 : 홈페이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측면

- 국보로 지정된 본당과 천 점의 천수관음보살상은 제작된 지 1,000년 이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된 당시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음.
 - 외부에서 본당에 바로 진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본당과 바로 이어지는 구조로 신발장과 화장실, 기념품점을 둔 건물을 증축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내에 관람객이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함.
- ⇒ 국내외 관람객이 많은 만큼, 신발 착용 및 사진 촬영 금지 등 관람을 허용하되 문화유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차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② 난젠지(南禪寺)

○ 방문 개요

- 일시 : 2024. 8. 26.(월) 15:00~16:30
- 위치 : 京都府京都市左京区南禅寺福地町
- 목적 : 일본 국보 현황 및 한국 문화유산 소장처 사례 조사

○ 연혁 및 현황

- 중세 교토에 있었던 다섯 곳의 선종 사원을 이르는 이른바 교토 오산(五山) 중 한 곳임
- 원래 가메야마천황이 1264년에 지은 이궁이었으나, 천황에서 물러나 법황이 된 후인 1291년 사원으로 바꾸고 송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무칸후몬이 이곳에 개산하면서 젠린젠지라고 명명함.
- 경내 다수의 건물이 국보(2건) 및 중요문화재(21건), 국가 사적(1건) 및 명승(1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메이지시기 축조된 수로교가 있음



난젠지 정문



삼문



법당



경내 수로각

○ 주요내용

- 교토 사찰 중 큰 규모에 속하는 곳으로, 송원대 선종의 직접 영향을 받은 임제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음
- 법당부터 수로교까지 중세부터 근대까지의 일본 건축사가 응축된 공간이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음
- 난젠지 소장 초조대장경은 원래 기후현 젠쇼지에 있던 것을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 명으로 옮겨진 것임
- 초조대장경은 국내에 1960년대에 존재가 알려졌으나 사찰 소장 문화유산은 사찰과의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므로 실물 조사는 오랜 기간 시행되지 못했음
- 2004년부터 비로소 고려대장경연구소를 중심으로 1,800여권에 대한 서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됨

○ 시사점

● 건축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 천년 가까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원과 건축물이 잘 관리되어 지금 사용해도 문제없을 정도임
- 난젠지는 기본적으로 입장료가 없으나, 산문과 방장은 지정 문화재이며, 내부 공간이 주는 특별한 경험으로 따로 입장료를 받고 있음
- 특히 방장은 관람객 행동 제한(일부 공간 촬영 및 신발 입장 금지)을 두고 있으나, 방마다 당시의 사용 물건과 예술 작품을 두어 전시 효과를 내고, 정원에는 휴식 및 명상 공간, 전통 찻집을 두어 작은 공간이지만 관광객들이 집약적으로 일본 선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었음

● 일본 내 한국문화유산 소장처로서의 홍보 필요

- 난젠지는 교토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찾고 있으나, 대장경 소장처로서의 인식은 낮은 편임
- 비록 불법 반출물은 아니나, 귀중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장한 곳으로서의 홍보가 필요함



경내 고려대장경 소장처 추정 건물



방장 내부 정원 및 서고

②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 윤동주 · 정지용 기념비

○ 방문 개요

- 일시 : 2024. 8. 26.(월) 17:00~17:30
- 위치 : 京都府京都市上京区今出川通烏丸東入
- 목적 : 일본 내 한국인 관련 사적지 사례 및 현황 조사

○ 연혁 및 현황

- 1875년 개신교개척교회연합의 일원인 니시마 조가 설립한 도시샤 영어학교에서 기원하며, 1920년 일본에서 세 번째로 대학령에 근거한 사립대학이 됨.
- 교토 내 2곳의 캠퍼스가 있으며, 14개 학부와 16개의 대학원 연구과로 편성됨.

○ 주요 내용

- 정지용은 1923년 영문과에 입학해 1929년에 졸업하였고, 윤동주는 1942년에 입학했으나 1943년 체포되어 옥사함
- 중앙도서관 앞에 윤동주와 정지용 기념비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각 비석마다 기리는 꽃다발과 양국 언어로 된 편지 등이 다수 놓여 있어, 이들을 기리는 방문자가 꾸준히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시사점

- 두 사람의 시비는 양국 국민 모두 꾸준히 찾는 곳으로, 두 사람의 문학, 특히 윤동주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림으로써 두 나라 우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음
- 워싱턴 주대한제국공사관과 상하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사례와 더불어 국외 소재 한국 관련 사적지를 보존 및 지원하는 것도 유물 환수만큼 중요한 과제라 생각됨



도시샤대학 내 기념비 모습

2 2일 차

□ 방문지

① 덴리도서관

① 덴리도서관

○ 방문 개요

- 일 시 : 2024. 8. 27.(화) 10:00~17:00
- 위 치 : 奈良県天理市杣之内町1050
- 참석자 : 총 7명
 - 덴리대 : 3명(부도서관장, 사무국장, 오카야마 명예교수)
 - 연구원 : 4명(박물관장, 교류협력부장, 선임연구원 2명)
- 목 적 : <몽유도원도> 복제품 열람 및 소장품 조사 관련 관계자 협의

○ 주요 내용

- 초상화 복제 협조에 대한 감사 표시
 - 작년도 복제 협조로 금년도 박물관 특별전이 무사히 개최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의 뜻 전달
 - <몽유도원도> 매각 및 복제 문의
 - <몽유도원도>는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내부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음
 - 복제할 경우 원본과 구분이 어려운 정도로 정밀하게 제작 가능하며, 이미 서산시와 국립중앙박물관에 각각 증정한 바 있다고 함
 - 미조사 한국본 조사 협의
 - 도서관소장 한국본은 이미 2005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하여 목록이 발간된 바 있으나, 아직 미정리본이 다수 있다고 함
 - 아직 이에 대한 목록이 없으며, 직원 한 명이 전산화 중이라 아직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다고 함
- ⇒ 향후 현지 조사 사업 협조 가능 여부 문의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도서관 견학 및 <몽유도원도> 복제품 열람(사무국장 안내)

- 덴리도서관 내부는 이후 증축된 공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구조는 물론, 내부 자재 및 가구까지 건립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었음
- 도서관에서는 1년에 2회(1회는 도쿄 덴리갤러리) 소장품에 대한 정기 특별전을 개최하며, 현재 도서관 2층에서 특별전 「파초의 근원(芭蕉の根源)」가 전시 중이었음
- <몽유도원도> 복제품은 도서관 측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물과 최대한 가깝게 제작되었음

※ 고고 및 민속 유물을 전시한 참고관은 휴관이라 관람하지 못함

○ 시사점

-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최소한의 현대화

- 덴리도서관은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 및 도서관사적으로도 귀중한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해 도서관 직원들의 자부심이 컸음

- 다양한 귀중서 수집 및 연구

- 덴리도서관은 국보『일본서기』와 전세계적으로 희소한 송원본 다수, 일본 최초 서양식 활자본인 기리시탄판 성경 등 많은 귀중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연구도 활성화되어 다양한 연구서를 발간함

- 멀티 기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 사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150만권에 이르는 장서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한적이나 자료를 공개하고 있었음
- 특별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시대극 촬영 장소로도 제공되어 지역 명소로도 알려짐



덴리도서관 정면



덴리도서관 앞 비석 및 특별전 포스터



덴리참고관 외관 및 출입구



덴리도서관 내부 모습

※ 도서관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홈페이지 사진 이용

3 3일 차

- 방문지
- ① 시내 고미술점
- ② 겐닌지
- ③ 교토국립박물관

① 시내 고미술점

- 방문 개요
- 일시 : 2024. 8. 28.(수) 10:00~14:00

- 위치 : 교토시 데라마치도리(寺町通) 및 모토마치(元町) 일대

- 목적 : 일본 고서 시장 유통 한국 문화유산 현황 조사

- 방문상점(총 9곳) ※ 명함 및 리플렛 첨부파일 참조

번호	상호	주요 분야	연락처
1	가즈라세이 데라마치점	교토 지역 미술품	075-253-2525
2	차도미술 이하라다상점	교토 지역 차 관련 공예품	075-200-6816
3	고미술 이모토	동아시아 고미술품	075-204-8852
4	고미술 시나가와	동아시아 고미술품	075-744-2040
5	고미술 야스야교에이도	동아시아 고미술품	075-231-4012
6	고미술 이치겐도	일본 고미술품	075-212-2333
7	마쓰모토소에이도	일본 고미술품	080-9608-7598
8	슈코도	일본 고미술품	075-531-4585
9	요코야마 교토본점	일본 고미술품	075-541-1321

- 주요 활동
- 전반적인 고미술상 유통 경향 파악

- 대부분 일본 고미술품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교토 지역에 한정된 미술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었음.

- 동아시아 고미술품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불교미술품과

도자기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및 충남문화유산 유통 조사

- 고미술품점에 공통적으로 문의한 결과, 한국 고미술품에 대한 수요는 도자기를 중심으로 없지는 않지만 유통량 자체가 적음. 이에 짧은 시간 안에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것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함.
- 한국문화유산 자체를 취급하는 곳은 두 곳 정도 있었는데, 지역 미상의 고가구와 계룡산 분청사기 2점이 확인됨
- 분청사기 경우 형태와 문양이 전형적인 양식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으며, 가격이 20만엔(한화 170~180만원) 정도였음



교토 시내 고미술상점 조사 모습

- **고미술품점과의 직접 연락**

- 문화유산 매입은 빠른 대처가 중요하므로, 한국 도자기에 관심을 갖고 취급하는 고미술 이모토와 메신저 아이디어를 교환함
- 방문 일주일 후 실제로 새로 들어온 계룡산 분청사기 1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가격은 70만엔(한화 약 680만원)이었음



고미술 이모토 대표와의 면담



방문 이후 메신저를 통한 정보 제공

② **겐닌지(建仁寺)**

○ 방문 개요

- 일시 : 2024. 8. 28.(수) 14:30~15:30
- 위치 : 京都府京都市東山区大和大路通四条下ル4丁目小松町584
- 목적 : 일본 내 조선통신사 관련 사적지 조사

○ 주요내용

- 1202년에 승려 에이사이가 창건된 임제종 사찰로, 국보인 풍신뢰신도를 비롯하여 방장 등 경내 건물 및 방문에 그려진 회화 16점이 중요문화유산으로 지정됨
- 방장 안 공간에 겐닌지 창건 800주년인 2002년 화가 고이즈미 준(1924~2012)이 법당 천장에 그린 쌍룡도를 기념하는 사진전이 개최되고 있었음
- 경내 료소쿠인은 조선통신사 숙소로 사용되었으며, 조선통신사가 써주었다는 현판이 걸려 있으나, 특별공개기간 외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함

○ 시사점

- 방장과 법당은 원래 별개의 건물이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건물을 이었으며, 전시 공간과 찻집, 기념품샵, 현대식 화장실을 구비하여 관람객의 이용 및 동선상 편의를 고려하였음
- 난젠지와 마찬가지로 겐닌지 역시 한국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것에 비해 역사적으로는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됨



겐닌지 정문



법당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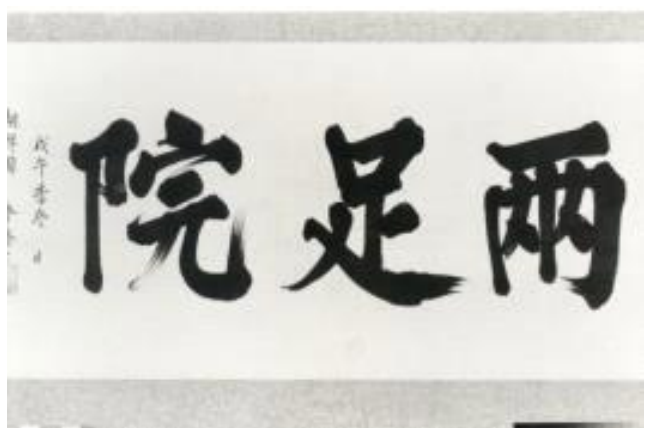
법당 천장의 쌍룡도



방장 내부



료소쿠인 입구



조선통신사가 써주었다는 현판(홈페이지)

③ 교토국립박물관

○ 방문 개요

- 일시 : 2024. 8. 28.(수) 16:00~17:00
- 위치 : 京都府京都市東山区茶屋町527
- 목적 : 한국 문화유산 소장 및 활용 사례 조사

○ 주요 활동

- 1897년 개관 당시부터 있었던 구관은 근대 건축가 가타야마 도쿠마가 설계한 것으로 1969년에 문화재로 지정, 현재 내진 설비 개수로 휴관 중임
- 2014년에 완공된 신관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은 공예와 문헌, 복식 등, 2층은 회화, 3층 고고 및 도자기가 전시되어 있음.
- 한국 문화유산은 박물관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와 2005년 고려대 박물관 조사로 주로 고구려 유물과 고려 청동거울이 있음이 확인됨
- 그러나 1층 공예실에 19세기 나전연상과 반질고리가 전시되어 있어, 이보다 더 다양한 유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체험활동 중에는 3~4세기 고분 출토 청동거울 복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코너가 있었음



교토국립박물관 외관 및 체험코너 ※ 전시실 내부는 사진 촬영 금지임

4 4일 차

☐ 방문지

① 시내 고미술점

① 시내 고미술점

○ 방문 개요

- 일시 : 2024. 8. 29.(목) 10:00~12:00
- 위치 : 오사카 우메다역 일대
- 목적 : 일본 고서 시장 유통 한국 문화유산 현황 조사
- 방문상점(총 3곳) ※ 태풍 간접영향으로 대부분의 상점이 휴점

번호	상호	주요 분야	연락처
1	고미술 바야하라	동아시아 고미술품	06-6366-2200
2	갤러리 데쓰카야마		06-6363-1135
3	에호도		06-6365-5911

○ 주요활동

- 오사카는 교토에 비해 고미술 거리 규모가 더 작았음
- 방문한 곳 모두 동아시아 고미술품을 취급하고 있었으나, 중국 및 일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도 있었음
- 고미술품점에 공통적으로 문의한 결과, 한국 고미술품은 유통량이 전체적으로 적다고 함
- 고미술품점마다 입수하고 있는 한국문화유산의 종류는 다양한 편이었는데, 문신상 · 신라토기 · 다식판 등 민속품 · 19세기 백자청화 용문병 등이 있었음
- 한 곳은 한국과 거래를 자주하는 편인데, 월 최소 2회 방문하는 곳도 있다고 하며,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함
- 한국 문화유산 자체가 많이 없는 가운데, 충남에 한정해야 해서, 외국인으로서서는 충남 지역을 선별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함



오사카 시내 고미술품점 조사 모습

Ⅲ 종합의견

○ 덴리도서관과의 업무 협의 결과

- <몽유도원도> 매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매각보다 복제를 통한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단계적인 교류를 통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협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함
- 이에 작년도 초상화 실견 및 복제, 금년도 전문가 자료 수집 등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오카야마 제이치로 명예교수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지 조사 경우, 도서관측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추진되어야 함

⇒ 차년도 초청 강연을 통해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 한국문화유산 유통 조사 결과

- 교토 및 오사카 시내 고미술품점을 방문한 결과, 한국문화유산 건수는 물론, 이를 취급하는 상점조차 적었음. 이는 수요가 적다기보다 한국문화유산 자체가 적어도 간사이 지역 유통량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진열된 미술품도 그때마다 유통되는 것을 들여온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가운데 점주는 충남의 지리와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이 얕은 이들이 대부분이므로, 매입하고자 하는 유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도 이해도가 높지 않아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점주들과의 신뢰관계 형성 및 홍보, 직접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메신저 교환을 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됨

○ 기타 사항

● 한국 관련 사적지

- 건립된 지 천 년 전후인 건물들도 보존 상태가 좋아 약간의 관람 제한이 있지만 관람객들이 당시의 건축 양식과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음

- 또한 원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적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국내 역사 관광지에서도 벤치마킹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난젠지와 겐닌지는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인지도 높은 교토 내 관광지이나, 그에 비해 한국 역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임. 한국 측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도시샤대 윤동주 및 정지용 기념비는 두 사람을 기림으로써 한국인에게는 긍지를 주는 동시에 두 나라의 우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유물 환수 외에도 국외 사적지 보존도 중요 과제로 염두에 두어야 함

● 교토국립박물관

- 교토국립박물관 경우, 교토 지역의 역사문화를 주로 다루고 있어 한국 문화유산이 도쿄국립박물관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유물이 소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전시 유물과 데이터베이스 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시 설명은 최소화하되, 조명을 통한 공예품 본연의 미를 살리고 있어 관람객의 감상을 유도한 점도 향후 전시 기획에 참고할 점이라 생각함
- 복제품을 직접 관람객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용도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끝.